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8월 7일(금)

...(음력 6월 18일)...

Пятница

7 августа 2020г.

№ 31 (11689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광복 75주년을 맞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사할린주 한인협회 주최, 한국 재외동포재단 후원 아래 제6회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가 개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 위치한 사할린한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3일간 선거 진행에 대한 법률에 서명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민 투표와 모든 각종 선거를 3일간 치르는 법률에 서명하였다. 이 조항에는 선거를 2일-3일간 진행하도록 적시돼 있다. 이러한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와 선거 일정에 대한 결정의 공식적 선포 후 10일 내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런 의도적 방식의 개표는 선거 마지막날 투표소 폐쇄 직후 시작된다.

선거 다일제 방식은 조기 투표를 제안하지 않지만 투표를 위해 공공 이용 장소와 주거지 부근의 옥외 투표소에서 국민투표와 선거를 치르는 허가권이 이뤄진다.

또한 투표소들의 참관인은 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시민만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선거가 며칠간에 걸쳐 진행되면 참관인 수도 최대한 3배로 늘어난다.

국가두마에서 이 법령에 대한 규정 시 선거 자체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범이 결과의 합법성을 높일 거라 주목하고 있다.

국가두마 감독 및 규정위원회 올라 사와스티야노와 위원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개정안 준비 시 러시아 헌법 개정안 투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했다고 한다.

헌법 개정안 투표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7일간 지속됐으며, 투표 참여도는 96%에 달했고 이런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했다.

쿠릴, 연방 특별프로그램 5주년을 맞이

사할린주에서 <2016년-2025년 쿠릴열도 사회경제적 개발>연방 목적 프로그램 실시 중간 결산을 내린다. 지난 4일 연방 특별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었다.

2016년 1월부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투루프, 쿠나쉬르, 쉬코탄에 광케이블이 설치되었고, 4개 유치원과 1개 학교, 6동의 공동주택, 스포츠 단지, 2개 소방서, 20km 이상의 도로가 건설되었다.

공공 기반시설 건설 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섬들에서는 4개 학교와 의료시설, 도로가 건설되었고 올해 말까지 11동의 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는 쿠릴열도의 주택 문제를 종결지를 계획이다. 또 하나, 교통 접근성이라는 핵심 문제는 3척의 신형 선박이 사할린-쿠릴 노선을 취항하도록 할 계획인 가운데 이 선박들은 올해 말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주지사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국가의 이러한 정책과 시행은 이 기획의 자금을 투입하는 기업들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총투자액 100억 루블리 이상이 소요되는 8개 대규모 기획이 여러 시행 단계 속에 있다. 2020년 연방 목적 프로그램 일환의 행사에 59억 루블리가 사용되며 이 중 3/4는 지방 예산에서 충당한다. 사할린주 정부는 2022년부터 연방 총자금이 증가돼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두고 있다. 이 금액은 핵심 제반시설인 파라무쉬르에 광케이블 건설, 정박소 건설, 선박 및 항공기 확보, 도로 개건의 자본금이 된다.

모든 정책은 쿠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대단히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쿠릴 주민들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증명하고 있다. 쿠릴 지방 행정부는 안정적으로 거주민이 증가하고, 출산율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할린주에 주거 목적의 건물들84%가 운용

8월 둘째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건설 분야 근로자들의 직업 명절이다. 2020년에는 8월 9일에 해당됐다. 도시, 마을, 학교, 유치원, 산업 및 교통 제반시설 모두 건설 부문 근로자들 덕분에 생겨났다. 사할린주 지역 총생산량 구조에서 '건설' 경제산업에 따른 비중은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건설 부문의 산업이 이뤄낸 생산액은 267억 루블리로 2019년 상반기 대비 113.7%에 달했다.

2020년 상반기에 건설기관의 종사자는 1만7천 명으로 주 근로기관의 총 근로자 수의 9%에 해당하고 건설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만4300루블리에 해당됐다.

사할린주 건설산업의 주요 부문은 주택 건설에 있다. 운용된 건물 중 84.2%가 주거용 건물이다. 상반기에 새로이 건설된 총124.8만㎡의 1635 가구가 운용되었다.

주택 건설량으로 보면 유즈노사할린스크가 주택 총 운용량 중 65%, 아니와는 17%, 코르사코브는 4%가 운용되었다. 주택 운용의 절반이 주민들의 자금으로 건설되었으며 6개월간 주거용으로 6만1500㎡ 면적의 496가구가 건설되었다. 올해 주거 목적의 평균 면적은 124㎡다.

연초부터 사할린주에는 비주거 목적의 97개 건물이 운용되었다. 이 중 사회적 시설로는 세웨로-쿠릴스크에는 '종합 스포츠 재활'시설로 수영장 212.5㎡를 포함해 총 2100㎡가 건설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루가워예) 100석의 '주내 장애인과 원로들을 위한 종합 사회 및 생활 봉사 서비스를 갖춘 특별 회관'을 비롯해 돌린스크의 28석 회관, 일린스크에 110명 수용의 유치원, 달네예에 550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등등이 건설되었다.

2020년 2/4분기에 조사된 건설기관의 사업량 평가 결과 건설기관의 지도자 56%가 경제 상황의 '만족'을 표했고, 20%는 '불만족'을 표했다. 평균 건설된 시설 이용도는 65%로 나타났고 이 건설사들의 사업을 제재하는 주요 요인으로 건설업체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바에 따라 '고가의 자재, 구조, 제작'(38%), '높은 세금율'(34%), '타 건설사와의 경쟁(32%)', '업무 수주 부족'(28%)으로 지적했다고 사할린주 통계국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의사는 착하고, 참을성 있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사할린주 중앙병원 내과 · 심장 전문의 공명순씨

사할린주 중앙병원(암센터) 내과 의사 겸 심장전문의 공명순(러시아 명 울리아 겐나지예브나, 1969년생) 씨와 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위해 샤흐초르스크로 가는 길에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샤흐초르스크에서 그녀가 어르신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전문의다운 모습의 활동이 보기 좋았다. 조금씩 말을 나누다 보니 공명순 씨가 샤흐초르스크 출신임을 알게 되었다. 블라고웨센스크 의대에 입학하기 전에 샤흐초르스크에 살던 그녀에게 이날 행사장을 방문하신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낯설지 않은 않았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중에 '누구의 딸, 누구의 손녀'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알아봐주었다. 어르신들을 진단할 때 공의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국말로 얘기했다.

"우리 엄마·아빠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한글을 몰라도 우리말을 조금 할 수 있어요."라고 공명순 씨가 설명했다.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그녀는 조부모의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았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적에 "명순아,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그럼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을 거야."라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샤흐초르스크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었고 울리아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의대에 입학한 것, 대학에서 만난 3년 차이 선배와 3학년 때 결혼한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 첫 아들을 낳은 것 모두 지

켜보셨다.

"제가 아이를 낳고 몇 개월 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동포분이었고 그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우리는 결혼을 했고요. 출산한 후에는 '대학은 졸업해야 한다. 도와주겠다'는 부모의 결정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인턴 기간까지 포함해 제 아들을 거의 4년이나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위해 1년간 휴가까지 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셋(남편, 아들, 나)의 가족은 거의 3년간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었어요."라고 공명순 씨가 고백했다.

샤흐초르스크 어르신들을 진단하면서 그는 이날따라 돌아가신 할머니가 많이 생각났다고 한다. 공명순 씨는 자기를 키워주시고 손주까지 잘 보살펴주신 할머니와 수다떨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2009년에 할머니는 공명순 씨의 부모님과 함께 천안으로 영주귀국하셨는데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어릴 때 자주 아프다 보니까 공명순 씨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가서 치료과에서 공부하면서 소아과 의사 꿈을 포기했다. "공부하다보니 소아과 의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아이들의 특징, 부모들의 반응 등 여러가지 정신적, 심리적 모멘트를 고려해 제가 정말 좋은 소아과 의사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인턴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병원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심장내과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심장 전문의가 되었죠. 이 병원에서는 거의 20년간 일했어요."라고 공 의사가 계속 이야기했다.

공명순 씨가 의사가 되기 전에 가

족, 친척 중에서는 의사는 없었다. 어머니는 만팔이 앞으로 의사가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하길 원했지만 공명순 씨만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동생 마리나도 신경학과 의사가 되었고 제부도 의사이고, 조카도 의사이다. 20살의 막내 아들도 의대에 입학했다. 사실 지금 30살이 된 만아들도 의사가 되고 싶어했는데 그가 11학년 때 공명순 씨의 남편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자 엄마를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사에 대한 꿈을 포기했다.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가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가장 아쉬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명순 씨의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명순 씨가 쉴 새 없이 의사로 활동하고, 계속 공부하는 걸 보면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면 지금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

1990년대 전 러시아가 경제 위기에 빠진 시기에 많은 의사들이 월급도 제때에 못 받았던 시기에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했다. 그때 당시 공명순 씨는 전문대 회계학을 통신으로 졸업하고 월급을 식품으로 받는 상황이었다. 한 가정에서 의사 둘이라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걸 이해했지만 자기 직업을 배신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의사는 어릴 적부터 저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행복하고 만족해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건강,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뿌듯해요."라고 공명순 씨는 말했다.

돈벌이를 해야 하는 그는 2007년

부터 시병원 외에 중앙병원 방사선과에서 내과·심장전문의로 활동을 시작했다. 3년 후에는 흉부과에서도 같이 일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 환자 상담을 시작했다. 2011년에는 중앙병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말고 정식 의사로 고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생각 끝에 암센터에서 일하기로 했다. 시병원은 당직, 특히 휴일 당직, 밤당직 등 일이 많아서 육체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두 분과에서 일하고 있다. 방사선과와 흉부외과다. 병원에서 공 의사는 동료들과 아주 친근하게 지내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흉부외과는 모두 남자 외과의사들로 구성돼 있고, 방사선과는 여자 의사들로 구성돼 있다. 서로 의지할 만한 동료들이라 지내기 아주 좋다고 한다.

암센터에는 증상이 심각한 환자가 많은데 이들은 자신의 병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잘 견디고, 참을 성이 많아 치료에 적극 응해주어 한 편으로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것도 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한다. 그는 수술 준비와 방사선 치료 준비, 그리고 수술 후 회복과정을 도와주고 있다. 좋은 전문의, 성실한 의료진으로 그는 병원에서 표창장과 감사장은 물론 주두마, 주지사 감사장도 받은 적이 있다.

공 의사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직업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살면서 잘한 것 중 하나는 직업을 잘 선택한 것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공 의사에 대한 '좋은 심장 전문의'라는 소문이 퍼지자 지인을 비롯해 모르는 사람 등 연락도 많이 온다고 한다. 상담에는 공명순 씨가 거절을 잘 못



한다고 한다. 이 상담이나 권고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다.

좋은 전문의로 그는 국가의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관 등을 위해 환자들의 병력을 연구·파악하여 전문의 소견을 작성한다. 이 작업을 그녀는 주로 집에서 한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계속 공부하기도 한다. 전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갖고 인턴 수료를 하면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의사로 일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증 효력 기간은 5년이다. 교육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정월부터 그녀는 사할린한 인문화센터 소속 1세대인들을 위한 의료 상담실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약 처방, 진단 조정 등, 주일에 2번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성의껏 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사는 착해야 하고, 책임감과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고 공명순 의사가 말하는데 이 말은 그녀에게 딱 맞는 말이다. 꿈을 펼친 후 거의 30년간 의사로 열심히 살아가는 공명순 씨는 모두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살아있는 전통' 축제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8월 8일과 9일 주 민속창작센터가 <살아 있는 전통> 수공예 축제에 주민들을 초대한다.

사할린의 토착 원주민인 님프족, 우일타족, 에벤키, 나나이족들은 그들의 민속문화를 구성하는 춤과 노래 예술, 전통 수공예, 그 밖의 고대 기술 등 모든 것들 대대로 소중하게 수집하고 보존하고 전수하고 있다.

축제 출연진: <멘구메 일가> 국립 민속앙상블, <님핀카> 클럽, <드레보>극장, <바이칼> 부랴티아 공화국 보컬 듀엣, <의흐 신화의 사람들(사할린 사람들)>민속문화센터의 앙상블.

제 6회 <살아 있는 전통> 사할린주 북부 소수민족 원주민의 수공업, 민속 공예예술의 주 민속 예술 축제의 주최는 주 고문서문화부 소속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사할린주 민속예술센터'이다.

축제는 새로운 장소인 포베다 거리 24 (주 민속창작센터)를 확보해 행사를 진행한다.

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фестиваль "Живые традиции"

8 и 9 августа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посетить мероприятия фестиваля ремесел "Живые традиции".

Коренные народы Сахалина — нивхи, уйльта, эвенки, нанайцы — бережно собирают, хранят и передают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всё то,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куль-

туру этноса: искусство песни и танца, традиции рукоделия и других древних технологий.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 народ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Мэнгумэ илга" ("Серебряные узоры"); · клуб "Нивхинка"; · театр "DREVO"; · вокальный дуэт бурятского землячества "Байкал"; · ансамбль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Люди Ых миф" ("Люди Сахалина").

Учредитель VI областного фестиваля народ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мыслов и ремёсел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вые традиции" —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рганизатор —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Фестиваль обрел новую площадку и пройдет по адресу: проспект Победы, 24 (территори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общает ОЦНТ.

세웨로-쿠릴스크 주민들에게 생선을 무료로 제공

세웨로-쿠릴스크 구역은 사할린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매년 주민들에게 신선한 생선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활동은 이미 전통이 되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연어잡이에 종사하는 업체들 - '그라니스', '알라이드', '쿠릴스키 라스벳'-이 송어를 제공하는 가운데 올해 연어잡이 초기부터 3톤의 송어를 제공했다.

생선 무료 제공은 '브쇼 들라 도마(집을 위한 모든 것)'상점 옆에서 이뤄진다.

Жителя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бесплатно раздают рыбу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 отличается от осталь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м, что ежегодно жителям бесплатно раздают свежую рыбу. Акция стала

уже традиционной и проходит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Горбушу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редприятия, занимающиеся добычей лосося: "Гранис", "Алаид" и "Курильский рассвет". С начала путины этого года они предоставили три тонны рыбы.

Раздач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озле магазина "Все для дома".

주말에 사할린 주민 3명이 전화사기로 50만 루블리 피해

지난 주 사할린 지역 경찰관들이 세 건의 전화사기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70세의 남성이 피해를 당해 사기 사건으로 지난 금요일에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밤에 신원 미상의 사람이 자신을 은행 보안과 직원이라 사칭하며 은행 계좌의 의심스러운 조작 때문에 사할린 주민의 신용카드를 잠정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범은 이 남성에게 계좌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기로 받은 SMS코드와 신용카드의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는 지시에 따랐고 그후 계좌에서 8만5천 루블리가 빠져나가고 사기범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토요일에 오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을 당한 여성(48세)이 신고했다. 사기범은 개인 신용카드 자료를 알아낸 후 34만 루블리를 빼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피해자의 경우처럼 사기범은 모스크바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했다.

세 번째 사건은 지난 주말에 네웰스크의 한 여성(45세)이 신고했다. 이 여성은 인터넷으로 외제차 거래 광고에 관심을 가졌다.

(8면에 계속)

광복 75주년 맞아

뿌리와 정체성을 되찾고 민족 문화에 관심을 심다

제6회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 캠프

광복75주년을 맞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사할린주 한인협회 주최, 한국 재외동포재단 후원 아래 제6회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가 개최되었다.

주 한인협회 측에서 코로나19가 현재 사할린에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역사캠프를 올해도 해야 하는지 고민한 끝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지난 3일 캠프의 개막식을 열었다. 행사를 찾은 사람들 모두의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고 캠프 참가자와 스태프들은 이번에 캠프 단체 티셔츠와 함께 다회용 마스크 등을 제공받은 가운데 캠프가 시작되었다.

캠프 개막식에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광기동 소장,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등이 학생들을 환영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들은 참가자들이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민족애와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원했다.

덕담을 한 광기동 소장은 "큰 바다를 갈 때는 제일 중요하게 방향이다."라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것이다. 이런 방향과 중심을 잡는데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자기 뿌리를 찾는 것이다."라며 "이번 역사캠프가 여러분의 방향과 중심을 잡는 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역사캠프는 사할린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사할린 한인사를 알려주며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이번에 우글레고르스크, 흠스크, 포로나이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에서 온 12세-15세의 동포 학생 24명이 뚝뚝한 일정 속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몰두했다.

청소년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 위치한 사할린한인 희생자 위령비, 사할린한인 이중징용광부 피



해자비, 코르사코브의 망향의 탑, 포자르스코예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 등에 참배하고 사할린 동포들의 아픈 과거사를 들으며 조부모, 증조부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을 거라 본다. 또한 학생들은 캠프에 오기 전에 〈나와 사할린 한인사〉란 주제로 숙제를 해와서 캠프 이튿날에 발표했다.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은 민족 씨름, 공예 활동교실, 한글쓰기, 요리 교실 등을 체험하고 인기가 있는 k-pop 위주로 플레이션을 준비해 왔다. 물론 놀이도 하고 사격, 트램폴린 등 체험장도 찾아갔다.

사할린 역사캠프 참가 조건 중 하나는 캠프에 처음 참가자 여야 했는데 생소한 경험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캠프는 더 더욱 의미가 깊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 본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5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사할린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조직은 4회 때는 사할린주 한인 노인회가 맡았고 작년부터는 주 한인협회가 전제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진행은 사할린 청년부가 맡았다. 올해 캠프 기획 담당자는 이 세르게이 청년회장, 캠프 지도자로는 배영희 주 한인협회 사무국장이 나섰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모든 교사진과 강사(주한인협회, 청년회 회원 등)는 처음 기획보다 주한인협회 부담이 커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임금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원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활동하기로 했다.

올해 캠프(5박6일)는 가장 규모가 커서 재정적 지원의 60%는 주 한인협회가, 40%는 재외동포재단이 부담했다고 전해졌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브리사와 흰둥이

어릴 적 우리집에는 '브리사'라는 오래된 차가 있었다. 『치티치티뽕뽕』이라는 자동차 동화에 빠져 있던 나는 그 고물차를 친구처럼 좋아했다. 밤이면 담요를 가지고 뒷자리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고, 자정 넘어 라디오도 은근했고, 툭툭 소리를 내며 식어가는 엔진도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아 정겨웠다.



브리사를 타고 달리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특히 엔진이 멎었기 때문이다. 비포장도로를 달려 먼 시골 친척집에 갈 때였다. 아버지는 진지한 얼굴로 "내가 너를 이렇게 편하게 키워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셨다. 걸어 다녔던 당시 어릴 적을 생각하면 자가용을 타고 가는 내가 교만해질까 염려하셨던 것 같다.

나는 차라리 걷는 게 마음 편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사는 타이어에서 튕겨나오는 돌맹이에 엔진 밑부분을 얻어맞고 들뜬 한 가운데서 버렸다. 나는 시동이 걸릴 듯 말 듯 애태우는 브리사를 수백 미터나 헉헉대며 밀어야 했다.

추운 겨울에는 차위에 담요를 몇 장이나 덮어 뒤편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렸다. 근처 여중고생들이 줄줄이 등교하는 큰 길에서 브리사를 밀었는데 창피하니까 고개는 꼭 숙이고 땅만 바라보았다. 내 다리가 유난히 튼튼한 것은 그 때 강하게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자전거로 평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 년 전에 아내의 강력한 주장으로 자동차를 샀다. 흰색 중고차라 흰둥이가 되었는데 아이들과 다니기에 편하지만 눈보라에도 자전거를 타던 정열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쉽다.

아이들 둘은 자동차에 관심이 큰 나이이다. 얼마 전 삼촌의 비싼 독일차를 타본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며 한마디씩 했다. 내가 타보지 않아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큰 애가 내 눈치를 살피더니 한마디 했다.

"그래도 나는 흰둥이가 좋아요."

왜? 무심코 묻자 진지한 답이 돌아왔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마음이 예뻐지만 사나흘에 한 번씩 흰둥이를 밀고 다니면 생각이 바뀔 게 뻔하다. 흰둥이는 가족에게 미움 받고 싶지 않은지 큰 고장 없이 쉼쉼 잘 달려준다. 브리사를 생각하면 흰둥이가 고맙다. 그렇다고 내가 브리사를 미워한 건 아니다. 달리지 않을 때 더 사랑했을 뿐이다.

광주에서 김남중

코르사코브 어르신들도 올해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여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사할린주 한인협회(박순옥)는 한국 보건부와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사할린 현지에서 1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는 이미 흠스크 구역(흠스크, 프라우다 마을과 체호브 마을)과 샤흐초르스크 어르신들이 참여했고, 8월 1일에는 이 프로그램이 코르사코브시에서도 실시되었다.

행사장에 모인 1세 할머니들을 17명을 공명순 내과·심장병 의사와 왈레리 메르쿠리에브 신경학 전문가가 진료하고 약을 처방했다. 배영희 주한인협회 사무국장은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파라핀테라피야를 했다.

점심을 드시고 노래와 춤을 출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박순옥 주 한인협회 회장은 어르신들에게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했다.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청년부(회장 이 세르게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아주 컸고 이날 코르사코브 한인회(회장 이태출)의 운영위원들도 도왔다.

오후에 의사와 청년 봉사자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건강상태로 행사를 찾지 못한 4분의 맥을 방문했다. 필자가 의사들을 따라간 가정중에 1942년생이신 할머니 한 분이 뇌졸중으로 5년째 침상에 누워계셨다. 이 할머니를 러시아인 며느리가 돌봐주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출근하는 시간에는 며느리의 어머니(사돈)가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 했다. 집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의사는 "할머니를 정말 잘 돌봐준다. 할 말이 없다."며 "약 처방도 잘 돼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을 아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코르사코브에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된 가운데 일부 어르신들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 때문에 행사를 찾지 못하고 가정방문도 거절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 모두에게 다회용 마스크1장, 1회용 마스크 100장, 멀티슈와 한국산 쌀(10킬로)을 1포대씩을 전달했다.

(취재: 배순신)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Программа «Здоровье» прошла в Корсакове

1 авгу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Пак Сун Ок отправились в Корсаков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ограммы «Здоровье», котора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существлено при соблюдении всех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с применением средств защиты.

Врачи провели осмотр пожилых людей,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программа профилактики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бабушки получили сеанс парафинотерапии. А после всего для всех был накрыт красивый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звучали песни в исполнении Петра Кан, под звуки музыки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пустились в пляс.

Как всегда организованно сработали волонтеры от молодежного отдела РООС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1-го поколения получили подарки (маски, влажные салфетки, рис).

В этом году проведение программы «Здоровь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 5-т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По словам Пак Сун Ок, остался один город.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астер-классы и флешмоб

3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молодеж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о уже 6 сезон, первый лагерь состоялся летом 2015 г. Организатором лагеря является РООСК, куратор проекта – молодежный отдел РООСК (председатель И Сергей), директор лагеря – Пе Анжела Анатольевна, воспитатели и волонтеры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частниками лагеря стали 24 подростка в возрасте от 12-ти до 15 лет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Углегорск, Поронайск, Холмск, Корса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др.).

В пятидневной программе лагеря – посещ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мес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амятни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Пожарском), проведение различных занятий и мастер-классов (каллиграф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рикла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ая борьба ссирим, приготовление десерта, танцеваль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подготовка флешмоба, а также погружение в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через тему семьи и самого себя. Ребята также побывали в тире, батутном парке.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 много общались.

В общем, это было познавательное, с пользой проведенное веселое врем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Литературный остров

В самом конце ию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борника «Сахалин — 2020». В нынешнее издание вошли стихи и проза пятидесяти авторов: членов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Острова далёкие и близкие».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некоторые авторы сборника, представившие страницы своего творчества: Николай Тарасов, Владимир и Полина Семенчики, Анна Сафонова, Наталья Капустюк, Владимир Губин, Виктор Горобец и другие. А живущие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а Елена Машукова и Елена Линдина, обратились к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с видеоприветствиями.

Сборник состоит из шести разделов, один из которых «И всё же на Востоке я...» открывается очерками Сергея Яна: «Пять сосен» и «Дворец Дракона морского Будды». Автор книг прозы и поэзии размышляет о поиске человека в лабиринтах истории и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ы. Толчком для поисков становятся путешествия: фактическое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места, заставляет героя глубже всматриваться в себя и быть чувствительней к таинственным знакам природы.

Язык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ахалина – 2020»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 как и сам остров: в очерках Сергея Яна звучат корейские слова; в повести Ирины Левитес герои интересуются словом «форточка» на украинском языке и ещё собираются учить иврит и английский; персонажи из детских историй Матвея Фурмана уже говорят по-английски и это спасает их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Мелькают в «Сахалине – 2020» фразы по-польски и по-японски.

В оформлении обложки и для цветной вкладки книги использована графика Натальи Кирухиной. Среди работ художницы в сборнике «Сахалин – 2020» можно увидеть созданную ещё в 1970-е годы бытовую картину с вопросом-названием: «А ты читал Чон Чхолья?» Герои работы Натальи Кирухиной живут своей обычной жизнью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на столе лежит раскрытая кем-то книга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оэта. Кто читал Чон Чхолья и кому адресован этот вопрос, можно узнать внимательно взглядевшись во всех героев этой удивительной картины.

Во время презентации часть тиража была передана авторам сборник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Электронная версия новой книги доступ-



на на сай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еники тратят меньше времени на школьные занятия

Сократ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времени, которо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еники тратят на школьные занятия.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30 июля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Национальным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9 год.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в среднем посвящают учёбе в школах по 6 часов 44 минуты в день, что на 50 минут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4 годом.

Учащиеся средней школы занимаются еще меньше – по 5 часов 57 минут.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отменой нулевого урока в школах и переходом на пятидневное обучение. При этом количество часов, которые они тратят на учёбу вне школы, увеличилось, так как дети стали чаще посещать част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центры.

KBS World

Генерал Пэк Сон Оп похоронен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Тэчжоне

Герой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ервый в РК четырёхзвёздный генерал Пэк Сон Оп похоронен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Тэчжо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РК по согласованию с семьёй покойного. Сообщив об эт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Мун Хон Сик уточнил, что решение о захоронении заслуженного военачальника в Тэчжоне было принято из-за того, что на Сеуль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не осталось мест для бывших генералов. Между тем, место

захоронения Пэк Сон Опа является предметом спора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поскольку в период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в Корее он служил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Либералы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его захоронения на национальных кладбищах, поскольку в 2009 году Пэк Сон Оп был включён в список прояпонских коллаборационистов. Церемония похорон состоялась 15 июля. Генерал Пэк Сон Оп скончался 10 июля в возрасте 99 лет.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Активы Nipon Steel могут быть конфискованы в счёт компенсации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00 часов 4 августа ф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илась процедура конфискации активов компании Nippon Steel в счёт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колониальный период.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шением окружного суда города Тэгу около 80 тыс. акций компании, размещённых в РК, могут быть конвертированы в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по номинальной цене. Речь идёт о доле Nippon Steel в совме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ей POSCO. В 2018 году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обязал японскую компанию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по искам четырёх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размере 84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человека. Это стало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побудивших Японию ограничить экспорт в РК ключевых сырьевых материалов. Токио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утверждая, что вопрос 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м труде урегулирован договором о нормал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т 1965 года. Япония угрожает ответными шагами. Помимо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экспорт, меры могут включать повышение тарифов и визовы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казание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ообщающих ложный адрес прохождения карантина, будет ужесточено

Наказание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при въезде в РК сообщают ложные адреса прохождения обязательного двухнед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будет ужесточен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Чон Сэ Гюн, выступая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по борьбе с COVID-19. Он отметил, что отныне будут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ять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т ли адреса, указанные иностранцами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фактическим местам их проживания. Будет также проверяться, пригодны ли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в которы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иностранцы, для карантина.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они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специаль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центры. Нарушителям режима карантина грозит наказание вплоть до депортации. Ране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депортировать трёх вьетнамских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прибыли в РК 20 июля, а через неделю покинули место прохождения карантина в городе Кимпхо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Церемония Seoul Drama Awards пройдёт без зрителей

15-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Seoul Drama Awards 2020 состоится 10 сентября в здании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MBC без участия зрителей. Это единственная в РК международна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телесериалов. 30 июля оргкомитет сообщил о планах трансляции церемонии через онлайн-платформу.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на церемонию приглашены только те, кто вручает и получает награды. Помимо самого награждения подготовлены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можно буд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едставленными сериалами и саундтреками. Все он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бесконтактном формате. В этом году,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уют 212 сериалов из 41 страны. 108 из них приходятся на Азиатский регион, 75 - на Европу. Seoul Drama Awards проводится с 2006 года для награждения телесериал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которые пользуются наибольше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Лидер секты Синчхочжи арестован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о борьбе с инфекцион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осле пяти месяцев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снователь и лидер христианской секты Синчхонджи 89-летний Ли Ман Хи заключён под стражу на основании ордера на арест, выданного окружным судом города Сувон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Его обвиняют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о борьбе с инфекцион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ыразившемся в сокрытии информации о количестве прихожан и местах проведения религиозных собраний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секта была основным эпицентр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Ли Ман Хи обвиняется также в присвоении 5 млрд 600 млн вон (4 млн 700 тыс. долларов) и незако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елигиозных служб. Он отвергает все обвинения, заявляя, что беспочвоился о сохранении тайны частной жизни прихожан.

Кассовые сборы «Полуострова» пре-взошли 40 млн долларов

Кассовые сборы фильм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Ён Сан Хо «Полуостров» в восьми странах превысили 4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4 августа данным компании NEW, занимающейся продвижением картины, только на Тайване отметка на третью неделю после премьеры достигла 10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фильмом «Плохие парни навсегда» с Уиллом Смитом в главной роли, премьера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ась ещё в феврале. Во Вьетнаме сборы составили 3,3 млн долларов, обойдя показатель картины «Паразиты». В Сингапуре отметка достигла 1,5 млн долларов. В августе премьера «Полуострова» намечена в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е и в Северной Европе.

(RKI)

Главная спецслужба Южной Кореи сменит название

Ведущие силовые структуры Южной Кореи, включая прокуратуру, полицию и разведку, ждут серьезные реформы. Полномочия будут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ы в пользу полиции, а Национальная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служба (НРС)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сменит название, превратившись в Службу внеш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азвед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и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омплекс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реформ достаточно обширен. Если обозначить лишь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то их можно резюмировать в передаче значительных полномочий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и частично сбору информации в пользу полиции, тогда как влияние прокуратуры и НРС будет существенно ограничено.

Самым ярким, хотя и не самым важным по сути изменением станет смена названия главной спецслужбы страны -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которая,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е имя, объединяет функции разведки и контрразведки. Согласно законопроекту, НРС теперь будет называться (если переводить буквально с корейского) Служба внеш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азведки (СВБ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Это станет четвертой сменой названия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уществования данной структуры. В 1961-1980 гг. она называлась Центральным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РК, в 1981-1998 гг. - Агентством план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 с 1999 г. по настоящий день –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ой.

Как можно догадаться, дело не только в смене "вывески". Новая спецслужба Южной Кореи в лице СВБР лишится части полномочий нынешней НРС. В частности, ей будет запрещено собирать какую-либо внутреннюю информацию о ситу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вести следствие по делам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польз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пецслужба должна будет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внешней" работе, в связи с чем и добавле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лово в ее название. Приоритет СВБР будет в работе по получению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за рубежом, а также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прочем, контр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функция у СВБР останется, что и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некоторые споры среди местных экспертов по поводу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возможно это осуществить без права сбора информации внутри страны. Главный же посыл этих реформ – на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 уровне пресечь возможности спецслужбы по вмешательству во внутреннюю политику Южной Кореи.

Данные перемены найдут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и в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структуре СВБР, где пока идет обсуждение о том, как именно должна будет выстроена новая вертикаль управления.

Отметим,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попытки полностью пресечь вмешательство НРС во внутреннюю политику, пока полностью реализовать это не удалось. П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винениям, включая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до сих пор сидят в тюрьме или получили условные сроки и крупные штрафы несколько бывших директоров НРС и их ключевых помощников.

чевых помощников.

Пожалуй, самые большие перемены коснутся все же не НРС, а прокуратуру. Ее работа и возможность ведения расследований будет ограничена шестью сферами, включая коррупцию, круп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одры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 выборы, преступления в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й сфере и крупные аварии и катастрофы.

Отметим, что полномочия прокуратуры "обрежут" 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Формально уже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отдельный следственный орган,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преступлениями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и политиков. В целом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прокуратуре оставили работу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и чиновникам среднего звена.

Большинство же отобранных у прокуратуры и НРС полномочий переходят теперь в пользу полиции. Она теперь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сбором информации внутри страны, расследованиями по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польз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теми преступлениями, которые не вошли в сферу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рокуратуры.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чрезмерную концентрацию полномочий у полиции, то внутри ее структуры большинство функций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и ведению дел будет делегировано из центр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 места – на уровни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и управлений полиции провинциального уровня.

Данные изменения не стали чем-то особо новым.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 его соратники пытались осуществить их еще с начала 2018 года, где главной сутью было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 центра полномочий от прокуратуры в пользу полиции и гарантия невмешательства спецслужб во внутреннюю политику. Однако многие законопроекты блокировались на уровне парламента, где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не имела большинства.

Убедительная победа Демпартии "Тобуро"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15 апреля позволила президенту и его окружению реализовать то, что было ранее задумано. Демократы контролируют 176 из 300 мест в нынешнем составе парламента, что позволяет им проводить практически любые законы без согласования с оппозицией, исключая лишь изменения в Конституции. В этой связи результаты совещания от 30 июля, где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актически точно будут воплощены в форме новых законов и/или поправок.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политиков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они намерены это сделать в ближайши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Ряд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ппозиции, политиков, экспертов раскритиковали новшества, указывая на возможные проблемы в работе и определении того, какое из ведомств и как должно вест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проч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дни говорят, что полиция и СВБР будут постоянно спорить и мешать друг другу бороться с пр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нутри страны, что полиция просто не сможет эффективн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спецслужбам КНДР, что прокуратура и полиция продолжат конфликтовать, однако настрой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реформы на этот раз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реализованы,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потенциальные недостат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Компания Amazon Korea заплатила налог на прибыль в размере 126 млн долларов

Компания Amazon Korea заплатила налог на прибыль свое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Amazon Web Services, которое предлагает услуги облачных вычислений, в размере 150 млрд вон (126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Сеульском городском налоговом управлении, платёж произведён без подачи апелляции. Глобальные компании, работающие в сфер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они не должны облагаться налогам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поскольку у них там нет постоянного места деятельности, а серверы расположены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Однако налого-

вые органы считают, что они осуществляют прак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за которую получают прибыль. Ещё в 2018 году доля Amazon Korea превысила 50%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ынка облачных вычислений, на котором она работает с 2012 года, а годовой объём продаж превышает 1 трлн вон (84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той же причине налоговый орган получил от компании Google Korea 600 млрд вон (501 млн долларов) в счёт не внесённых своевременно налогов на прибыль. Однако компания подала иск в Налоговый трибунал.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П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лучил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юджетные мест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абитуриенты, поступающие в главный островной вуз, с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14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бюджетных мес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одпис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Изменения коснутся направлений: «Прикладная математика и информатика» (2 места), «Биология» (2 мест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муницип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10 мест).

Переговоры о выдел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бюджетных мест велись с федеральным ведомство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 данной просьбой к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цы обращались как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так и в ходе прямых линий, посвященных развитию остро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руководство вуза подало заявку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ста в Минобрнауки.

— Мы всецело приветствуем реш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 выдел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бюджетных мест университету и считаем это верным и своевременным решением, — отмечает врио ректора Мария Ганченкова.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одно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учреждении идет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повышению рейтинга вуза, который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закреплению молодежи на островах.

Напомним,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Агентством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Арктике и 14 ведущими вузами страны ранее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создании на базе СахГУ Мультиуниверсите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ервым этапом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Мультиуниверситета стала программа двух дипломов. У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знания в московских, петербургских, томских вузах, не выезжая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ейчас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риемная кампания.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завершится 18 августа. Телефон приемной комиссии СахГУ: 8 (4242) 450-300.

Более 1100 человек спасли островные сотрудники МЧС с начала года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3 августа в ходе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щания по вопросу готовности органов управления, сил и средств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подсистемы РСЧ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седание провел министр РФ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Евгений Зиничев. О работ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рассказал 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и и.о.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Открывая совещание, Евгений Зиничев отметил, что в текущем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сезонные риски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значений.

— Силы и средства РСЧС должны быть направлены на защиту территорий и населения от возможных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На совещании отметили, что на островах сниз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техногенных пожаров. В сравнении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 на 36%. Кроме того, положи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наблюдается в обеспече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людей на водных объектах.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аварий с участием маломерных судов в регионе не происходил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отметил, что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телей — одна из ключевых задач руководства островных властей. Она решается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глав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находится ситуация, связанная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регионе ввели режим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ы меры по недопущению резкого рост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COVID-19. Это позволило области оставаться с одними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России.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овина заболевших уже выздоровела, а летальных исходов и вовсе не был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обновляют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ую базу, задействованную в защите людей при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В частн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за счет региональных средств приобрели 8 пожарных машин, 3 из которых направили на Курилы. Модернизируется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ая система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го оповещения населения — на островах установлено 376 громкоговорящих устройств. В этом году техника доказала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 связи с эпи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введением особого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режима ж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ежедневно информировали о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областного резерва матери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для ликвидации чрез-

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Для оперативной доставки такого имущ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созданы специальные базы хранения. Всего их 6. Причем 4 расположены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Запасов хватит,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необходимыми средствами до 3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течение 20 суток,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С учетом последних событий, теперь в областном материальном резерве будем хранить такж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запас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средств защиты.

Значимую роль в сохранении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грает «Система-112».

— Единую систему вызова оперативных служб —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скорой помощи и полиции — мы ввели в постоянную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она оказалась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у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операторы системы приняли 240 тысяч звонков, причем 37 тысяч вызовов поступило с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В целях проверки готовности сил и сред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подсистемы РСЧС в этом году трижды проходили учения и состоялось 25 тренировок с различными органами управления.

Более 150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получили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с начала года

Большинство родителей направляют средства на покупку автомобиля,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а также получают деньги в форме периодических выплат. В этом году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на эту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начала года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сняты возраст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для женщин. Теперь любая мама, родившая первого малыша, получает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в размере 150 тысяч рублей. Также приятные изменения коснулись и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при рождении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С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увеличился с 204 до 250 тысяч рублей, — поясн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организации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Степанова.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детей, плат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приобретение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для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я. Семья Кудашовых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тратила деньги на ремонт квартиры.

— Наша малышка родилась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Мы даже не рассчитывали стать обладателями гарантийного письма, но потом нам сообщили, что возраст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сняты при получении маткапитала на первенца. 150 тысяч для нашей семьи — большая помощь,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молодая мама Татьяна.

За счет капитала также можно получать выплаты: ежемесячно по 5000, ежеквартально по 15000, а также единовременно — 30000 рублей.

Отметим, одно из обяза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 прожива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менее одного год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еред рождением (усыновлением) ребенка.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откры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Открытие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ткрытого типа (ФОКОТ) прошло 3 августа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Объект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тренировок юных футболистов, проведения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 также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нормативов ВФСК «Готов к труду и обороне».

— Сегодня состоялось значимое событие для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 любителей футбола. Мы официально открыли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который отвечает всем пожеланиям футболис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площадка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ает тренировочный процесс и позволяет создать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располагается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к «Олимпии парк». ФОКОТ находится на 15 километре Корсаковской трассы. Он оборудован футбольным полем 60 на 30 метров,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м ядром на 200 метров и зоной с антивандальными тренажерами.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можно играть в стритбол, гандбол и новую игру - флорбол, для которой руководство клуба уже приобрело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аблюдать с трибуны за матчем одновременно может порядка 100 человек.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тделение футбола «ФК «Сахалин» насчитывает более 400 воспитанников. Из-за нехватки тренировочных площадей нередко возникали сложности с составлением расписания тренировок.

— На новой площадке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занятия не только по футболу, но и направлениям, включенным в программу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х сборов - легкая атлетика, баскетбол и занятия на тренажерах, — поделился директор учреждения Евгений Крючков. В планах руководства клуба привлекать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к участию в физ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не только своих воспитанников, но и ребят из ближайших сел - Дачное,

Соловьевка и Мицулевка.

—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наш новый комплекс, здесь все красивое и современное. Я попробовал позаниматься на тренажерах и сейчас мне не терпится поиграть на новом поле со своей командой, — поделился эмоциями воспитанник ФК «Сахалин» Севастьян Кузьмин.

Сегодня на новой площадке состоялись показательный матч юных футболистов, а также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ая эстафе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Спорт-норма жизн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вызвать врача на дом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Пока такой услугой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жители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ов Луговое и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течение этой недели она станет доступна всем горожанам, а к концу августа — каждому сахалинцу и курильчанину.

Регистрация заявки на вызов специалиста проводится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инут. Единственное требование —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быт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 Внедрение нового сервиса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им смогут пациенты, которые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не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лечебное учреждение. Если человек обратится за услугой до 10 часов утра, то она будет оказана в день обращения. После 10 утра -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 поясн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нали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Елена Ханбикова.

Чтобы вызвать врача на дом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нужно перейти на сайт и авторизоваться. Затем открыть раздел «Услуги» и выбрать категорию «Мое здоровье». Далее пациенту следует кликнуть на пункт «Вызов врача на дом» и заполнить форму записи — указать ФИО и адрес фактического пребывания, причину вызова, а также обозначить дату посещения врача. Как только заявление будет принято, на почту заявителя придет уведомление, а в указанный срок прибудет специалист.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зят курс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медучреждений,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шение вопросов доступности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ызов врача на дом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 возможен благодаря внедрению иннов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и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качество уборки дорог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ого автомобиля 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1 августа ежедневный мониторинг ведут на проспекте Мир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омплекс стандартов по качеству содержания дорог на примере этой улицы ранее разработа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эффек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Волга Сайбер», оборудованная камерами высокого разрешения и различными датчиками, в том числе по измерению уровня запыленности, ежедневно проезжает по проспекту Мира. Задача водителя спецавтомобиля и параллельно работающих квадрокоптеров — зафиксировать реальную ситуацию на дороге.

— Главная цель, которую мы преследуем, — улучш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Мониторинг ведется ежедневно, в том числе в выходные. В течение августа мы тестируем эту систему и будем применять и на других улицах, а затем и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данные обрабатыв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но в дальнейшем это будут делать нейронные сети, уже работаем над этим,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Все данные, собранные с помощью объезда и облетов, сразу направляются в ситуационный центр. Здесь проводится первичная обработка снимков. Благодаря фотографиям высокого разрешения четко видно, в каких местах дворники или водители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плохо справились со своей работой. Анализ ведут по 15 параметрам: наличие пыли, грязи и мусора на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в автобусных карманах, в урнах, на газоне и т.д.

— Специалист ситу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из полного массива фотографий формирует упрощенный и направляет сотруднику департамента город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м анализируют данные и формируют ежедневный отчет, который направляют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тветственной за уборку. Отреагировать на замечания и устранить их должны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отраслевого развит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эффек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Александр Гоголин.

В перспективе систему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 для контроля за содержанием дорог и в зимнее время. К наступлению холодов ведомство разработ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комплекс стандарт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전 세계 1억명 서명 받아 평화협정 요구할 것"

[현장] 정전협정 67주년, 시민사회단체 '평화협정' 서명운동 시작... 2023년 유엔 전달 목표

정전협정일인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아래 6.15남측위)를 비롯한 연대 단체가 '한반도 종전 평화'를 외치며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전 세계 1억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을 받겠다는 운동이다. 종교계, 국제 평화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선택한 방식은 '서명'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지 이름을 모은다는 것. 목표는 1억 명. 멀게만 느껴지는 숫자지만, 이미 국내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만 324개에 달한다.(7월 26일 기준)실제로 명예대표와 공동대표만 봐도 국내에 활동하는 주요 종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예대표는 종교계 인사들이다. 불교(원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기독교(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원불교(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유교(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천도교 교령), 천주교(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공동대표는 '길 위의 신부'로 불리는 문정현 신부를 비롯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등 15명이 맡는다. 단체들은 한반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2023년, 서명을 모아 유엔을 비롯한 정전협정 관련 4국(남·북·미·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이 만든 평화

"오늘 아침 강화도에서 광화문으로 올 때, 왼편에 한강구 철책이 보였다. 그 너머에 북한이 있었다. 강화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구 철책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끼며 70년을 살았다. 철책 너머에 남북주민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한다. 누군가(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평화를 통해 남북 주민이 자유롭게 우리 땅을 오갈 수 있기를 바란다."강화도 주민 박흥열 씨는 남북 주민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평화'를 말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내는 '평화협정'을 맺어 우리땅을 우리가 누비자는 요구다.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세계 시민에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가혹함을 겪어왔다. 한반도 분단과 대결은 70년을 넘어 이어져 오고 있다"라면서 "세계시민 여러분이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윤 대표는 "한반도에서 시작한 평화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로 연결된다"라면서 "세계시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손잡으면 평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한 대가로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고 긴장이 높아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은 후퇴하고 있다."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무치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등이 부슬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마이크를 잡고 호소했다.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을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평화로비'라는 이름으로 한국 지자체와 의회의 참여를 조직할 계획을 밝혔다.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에서 그치지 않고 여론을 만들어 '지자체'를 비롯해 여론의 영향을 받는 '국회'의 반응을 끌어내겠다는 것. 미국 대선과 유엔 총회 등 계기별로 국제협력 활동을 해 '한반도 평화'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계획도 있다."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모인 시민들은 전쟁에 대비해 쓰는 돈을 시민의 안전·환경을 위해 사용하자고 외쳤다. 군산 미군기지, 매항리 폭격장, 효순·미선이 사건, 평택 대추리, 서울 용산, 제주 강정마을까지. 평화를 외치고 국가 폭력이 있는 곳에 달려간 문정현 신부가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대형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평화의 미래를 대표하듯 오연재 성미산 학교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유홍희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집행위원장, 김서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가 평화를 요구하며 서명했다. 한편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온라인 서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정전협정 67주년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시민 단체 회원들이 전 세계 1억명을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시작 선언식을 하고 있다.



▲ 정전협정 67주년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시민 단체 회원들이 전 세계 1억명을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시작 선언식을 하고 있다.

(<https://endthekoreanwar.net>)

(출처: 오마이뉴스)

[우리말로 깨닫다]

힘을 빼다

'힘'이라는 말은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세다, 힘이 들다, 힘을 내다, 힘을 주다, 힘이 빠지다 등 함께 쓰이는 표현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은 참 중요한 어휘입니다. 젓 먹던 힘까지 내어 이루고 싶은 일도 있고, 말 한마디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살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힘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빠져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 공)

세상을 살면서 몸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힘이 생겨나야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밥도 먹습니다. '밤심'이라는 말은 '밤힘'이라는 뜻입니다. 먹어야 힘을 내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주먹을 쥐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몸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가슴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힘을 주는 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다닌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거만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힘은 필요할 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힘을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밖에도 살아가면서 힘을 빼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생활의 현장에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힘을 빼라는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상하지요. 힘을 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언제 힘을 빼라는 소리를 듣게 되나요? 언제 힘을 주고, 언제 힘을 빼야 할까요?

저는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목에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납니다. 미용사가 머리를 감아줄 때 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감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힘을 빼라는 말을 듣지만 막상 목에 힘을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사는 버릇은 되어 있는데 목에 힘을 빼는 버릇은 없었나 봅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야 겨우 목에 힘을 빼게 됩니다. 주사를 맞을 때도 힘을 빼라고 하지만 오히려 긴장해서 힘을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을 빼라는 말이 우리를 긴장시키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힘을 빼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수영을 배울 때 제일 자주 들은 소리가 힘을 빼라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힘을 주면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에는 힘을 뺄 수도 없습니다. 힘을 빼면 더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을 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힘을 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에 새삼 놀랍니다. 우리는 보통 때 힘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새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빼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힘껏 살지 않고서 힘을 뺄 수는 없습니다. 힘이 드는 것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어야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집착을 없애려면 집착이 있었어야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요즘 저는 장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장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일단 세계 치라고 합니다. 세계 칠 줄 알아야 나중에 힘을 빼고 칠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세계 쳐서 제대로 소리를 낸 후 점차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장구와 함께 민요도 배우고 있는데, 민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소리로 부를 수 있어야 낮고 깊은 소리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청을 띄우고 나서야 세밀한 소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든 삶일수록 더 스스로에게 힘을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어깨에 힘을 주었으면 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은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목에 힘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힘이 들더라도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서 서서히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고 옆을 봐야 합니다. 힘을 빼고 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겁니다. 늘 힘만 주고 살고 있다면, 반대로 늘 힘이 빠져 살고 있다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힘을 주고 빼면 힘만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힘든 겁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전화로 전화했을 때 차량의 소유주라고 밝힌 남성과 통화가 되었다. 사기꾼은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여성은 남성에게 차량 구입의 선금으로 19만 루블리를 송금했으나 그 남성은 전화를 차단시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남성의 신분증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형사상 사기죄로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범죄자의 위치와 신원을 조사 중에 있다.

7월1일부터 31일까지 전화사기범(보이스피싱)들은 сахалин 주민들에게서 금액 1100만 루블리를 갈취했다. 이는 6월에 사기 피해 금액의 2배에 해당된다.

За выходные трое сахалинцев отдали мошенникам свыше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минувший уикенд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няли три заявления о мошенничестве.

Одним из потерпевших стал пожилой южносахалинец. С заявлением о мошенничестве 70-летний пенсионер обратился в полицию в пятницу. Мужчина сообщил, что посреди ночи ему позвонили неизвестные,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лись сотрудниками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банка, и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карту островитянина пришлось заблокировать из-за

сомнительных операций по счету. Собеседники сообщили, что для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й нужно сообщить номер кредитки и смс-код, который придет на телефон. Пенсионер выполнил инструкцию и с его счета тут же исчезло 85 тысяч рублей, а мошенники больше не выходили на связь.

В субботу аналогичное заявление поступило от жительницы Охи — 48-летняя женщина стала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провернули аналогичную схему. Выяснив личные данные банковской карты, преступники украли 340 тысяч рублей.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пенсионером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известные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звонили с номер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в Москве.

Третьей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ков за выходные стала 45-летняя невестка. Он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объявлением о продаже иномарки в интернете. Когда женщина позвонила по указанному на сайте номеру, ей ответил мужчина, который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автомобиль принадлежит ему. Автор даже прислал островитянке фотографии своего паспорта. Потерпевшая перевела мужчине в качестве предоплаты за машину 190 тысяч рублей, а он тут же отключил телефон и больше не выходил на связь. Снимки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оказались фальшивыми.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возбудили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о мошенничестве. Ведется следствие.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выясняют личности и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преступников.

С 1 по 31 июля аферисты заработали на доверчивости островитян свыше 11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их добыча в июне.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크라сно고르스크 한인회 문종기 회장이 2020년 8월 3일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하며,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문종기 회장에 대한 기억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한인노인회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ие и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по поводу безвременной кончины 03 августа 2020года Председателя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с.Красногорска Мун Ден Ги. Память о нем останется в сердцах тех, кто его знал.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тарейши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020년 8월 3일 크라스노고르스크 한인회 문종기 회장(1947년생)이 별세하셨다는 뜻밖의 비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